

과채류 재배 시 퇴비차 활용방법

» 배경 및 필요성

- 시설재배지의 연작으로 인한 염류집적 등 토양의 불균형 초래
- 토양의 건전성과 수량성 유지를 위한 양분공급방법 필요

» 정보 내용

- 퇴비차는 퇴비로부터 수용성 양분과 세균, 사상균, 원충 등을 우려낸 액체로 미생물의 활발한 증식을 위해 공기를 불어넣어 만든 액비의 일종
- 잘 부숙시킨 퇴비를 부직포 등 잘 우려나올 수 있는 자루에 담아 20배의 물에 공기를 주입하면서 48시간 추출
- 퇴비차를 사용하면 좋은 점
 - ① 작물의 양분이용능력을 향상
 - ② 엽면 살포 시 양분흡수 능력 증가
 - ③ 토양 보수력과 보비력을 향상으로 관수량과 비료사용량 절감
 - ④ 유용미생물이 작물표면에 도포되어 선점함으로써 병원균 번식을 억제
 - ⑤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으로 파괴된 토양환경 등 미소생태계 복원
- 토마토 시설재배에서 비료관주 시 화학비료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퇴비차와 1:1로 혼합하여 사용하면 상품성이 높은 규격의 과실 생산량이 증가하였고, 재배 후 토양에 양분집적이 적어 후작기 토양과 양분관리가 용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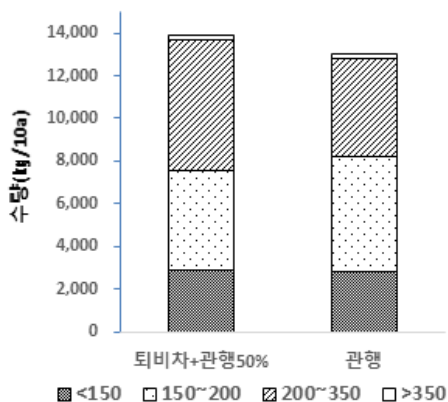
» 파급효과

- 과채류 재배 농가의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로 경영비 절약
- 토양의 염류집적을 줄여 토양의 건전성 유지로 연작피해 감소

<세부 연구결과>

○ 퇴비차 이용 재배 시 토마토 수량(퇴비차 + 관행 비료사용량 50%)

구분	총수량	상품과 (200~350g)	최상품과 (250~300g)	150~200g, 350g~	비상품과 (~150g)
퇴비차+50%관행	13,889	6,130	1,762	4,896	2,863
관행	13,033	4,660	1,332	5,522	2,851



○ 퇴비차 이용 재배 시 토양 화학성 변화

